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1호 【루게 제23003호】주제99(2010)년 2월 20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사설

###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의 이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자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대고조의 진군 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승리의 열쇠는 우리 일군들이 제시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는 우리 당이 일찌기 당의 령도를 혁명적중로선과 결합시켜 구현하기 위하여 내놓은 구호이다. 이 구호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우리 당만이 들고나갈수 있는 혁명적구호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와 혁명적중로선을 밀접히 결부시켜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백전백승의 당으로, 인민의 모든 리상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항도자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

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대고조의 장엄한 현실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으며 어머니당을 위해 애국충정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넘쳐있다.

당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은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고있다. 오늘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서 받들어나가기 위한 혁명의 지휘사령관이며 우리 당의 핵심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일군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일분수에 따라 인민생활문제가 좌우된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나게 될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는 우리 당의 혁명적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철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혁명적구호이다. 혁명적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

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그 위력으로 오늘의 대고조에서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관건적구호이다.

오늘 당의 전투적호소와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 펼쳐 나신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대단히 높다. 인민들의 사상정신력이 고조될수록 당의 중로선 실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인민은 당의 목소리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인민이다. 당의 중로선의 요구대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발동할 때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제기되는 과업이 방대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당의 혁명적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 없는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당의 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이 절대적인 사랑과 믿을, 끝없는 신뢰와 보답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사회는 위대한 령도자를 어머니로 높이 모신 혁명적대 가정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는 이 땅위에 인민의 모든 리상과 행복을 꽃피우려는 우리 당의 최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한 전투적 구호이다.

우리 당이 작정하고 전개하는 모든 사업은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일관되어야

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에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둘어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사랑의 철학이 비껴있다. 우리 당이 선군을 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절계도를 펼친지도,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것도 결국은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려는 숭고한 의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공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했던 엄혹한 시기에도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기초식품 공장들을 수없이 일떠세워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은것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의 빛나는 구현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펼쳐져있다. 우리 당이 간고한 시련속에서 하나하나 마련해놓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오늘 내기 시작했으니 인민들이 소리지르며 잘살게 될 날이 다가오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갈 때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게 될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빛나는 현실을 앞당겨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워 모든 사업을 인민중심의 관점과 립장에서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민대중이며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신조이다.

우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업을 작정하고 설계하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과 감정에 맞게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거울로,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오직 그대르만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안겨 주시려는 숭고한 목포로로 지향되고있다. 오늘날 진정한 수령결사옹유도, 최대의 애국도 다름 아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나서는데 있다. 일군들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현직지도 강령군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승결과 보복을 같이하며 장군님의 뜻을 꽃피우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나가는 건

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유의 전위 투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제시하신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과 방침들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다져놓은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온이 나게 하고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알리은 사에 더 높은 혁명적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모든 리상을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당에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신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당은 확고하게 굳어있다. 전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고 이 땅위에 나라도독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고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늘 중군과 교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오의 앞장에서 오늘의 총공격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혁명적중로선의 요구대로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제시하신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과 방침들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다져놓은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온이 나게 하고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알리은 사에 더 높은 혁명적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모든 리상을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당에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신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당은 확고하게 굳어있다. 전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고 이 땅위에 나라도독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고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늘 중군과 교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모든 리상을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당에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신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당은 확고하게 굳어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모든 리상을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당에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신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당은 확고하게 굳어있다. 전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고 이 땅위에 나라도독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고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늘 중군과 교락을 같이하면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인사와 단체들이 선물을 올리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영화 및 통일당 위원장장 모이쉴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아 선물을 올리겠다. 《21세기판권약단》이 선물을 올리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들을 에 스. 제. 우랄라프와 로씨야영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엘레나 에브라키야 모이쉴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아 민속무용단 지배인, 바벨 오브나니코프 《21세기판권약단》 단장 로시치비치와 세묘노비치인인 11일 김영제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브라질로동당 제4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브라질리아

### 브라질로동당 제4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브라질로동당 제4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이번 귀 당 대회가 당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99(2010)년 2월 18일

평양

## 제14차 김정일화축전 폐막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12일에 개막되었던 제14차 김정일화축전이 성파적으로 폐막되었다. 수만상의 태양의 꽃이 전시되어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은 현일 상황을 이루었다.

축전기단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등 수십만명이 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들과 주조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 등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이 축전장을 돌아보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축전은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 전세의 위인을 꼽았이 칭송하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뜨겁게 보여 주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려는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파시 하였다.

폐막식이 19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최대부동지, 양형섭동지와 관 계부문 일군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리기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 조선인축하단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조 국혁명통일위원회, 외무성에 특등 상 상장이,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 특별상 상장이 수여되었다.

많은 단위들이 최우수상, 우수상, 과학기술상 상장을, 수십명의 인민군인, 근로자, 청소년학생들과 해외동포, 외국인, 우리 나라에서 살고있는 화교들이 참가증을 받았다.

안동춘문화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제14차 김정일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되며 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는 불멸의 꽃배와 보급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갈라 해 대하여 강조하였다.

폐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기》의 주악으로 끝났다.

절세위인에 대한 칭송의 열기로 끓어번진 이번 축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정사로 맞이하기 위한 천 만군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로씨야, 라오스통신들이 3일과 5일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통신들인 《웹스피. 루》, 《아르구멘타 네겔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를 전제없이 강화해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에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발전소건설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최첨단발전소건설을 현지도하시였다. 이 최근에는 금야군 원평대홍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을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거기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리게 하시려는 김정일동지의 현지도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라오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총비서께서 금야군 원평대홍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

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연혁소개실에 들어서서 사업소의 발전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가공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장과 각종 수산물가공품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께서는 사업소의 로동체계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재의 힘으로 부두건설을 비롯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한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이께서는 세면이 바다를 끼고 있는 조선에서 수산자원을 개발리 용하여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부리를 보다 증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께서는 대형어업과 증조어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물고기생 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이께서는 허리띠를 조이며 애써 버리는 강력한 중공업이 용을 쓰며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결과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

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8일 조선의 발전 소식을 8일과 9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2월 8일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인 왕가서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석상에서 왕가서부 장은 김정일총비서께 보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호금도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호금도총서기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왕가서부장과 담화를 하시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미국의 AP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과 《도쿄신문》, 《니혼게이지》, 《아사히신문》, 《마이니찌신문》, NHK방송, 영국

의 로이터통신, 인디아신문 《힌두 스타 라이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일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2월 두 나라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0돐에 즈음하여 2월 5일 거국 《오베르네 오베르네》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이께서는 김원경명칭 평양음악 대학의 애젊은 학생들이 외국교과 강사장조파제를 원만히 수행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5대혁명가들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재보를 가지고있는 조선인민은 세계문화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같은 날 세묘노비치사상연구 및 구호소속과 배두산세묘노비치선선협 회도 인터넷광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에 이 소식을 올리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밑에 현대화된 우리 나라 굴지의 화학공업기지 - 2. 8비발련합기업소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

## 영농계획은 명백히, 실천은 완강하게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공동구호에 접한 동천군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설레이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50년전 창설하신 혁명적 선진농촌 건설을 실현하시던 그날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에 제시된 과업대로 지난 기간 농장관리운영에서 계획문제를 중시하고 여기에 힘을 넣어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올해에도 이들은 영농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농사차비를 하루도 놓치지 않을 결심을 굳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공동농사의 전후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결의가 열렸을 때였다. 농장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운다면 농사차비를 여기에 따라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해 우리 농장을 세차레나 찾아주시고 온정어린 프락토르들을 보내주시었는데 이 롬마가 있는 한 못해낼 일이란 없습디다.》

이렇게 말머리를 댄 농장일군은 프락토르가동물을 높이는 여기에 농사차비는 물론 한해

반비료를 생산하면서 영농자재 준비를 비롯한 모든 농사차비를 제때에 따라세워야 다음영농공정을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기때문이었다.

방대한 일감을 놓고 일군들이 저마다 노력탄을 앞세우면서 난감해하자 관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예 내려가 대충을 조직동원하는것과 함께 영농계획을 보다 명백하게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뜻깊은 올해를 알곡산으로 빛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날동안 작업반들을 돌아다니면서 현실을 로해하는 과정에 찾아낸 다음과 같은 사실자료를 알려주었다. 제2작업반의 경우 남달리 농사조건이 유리한것은 없다. 하지만 이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정보당 알곡수확고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비결은 작업반조급일군들이 알곡생산계획을 높이 세운데 맞게 농사차비부터 남달리기에 이르기까지의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계획을 명백하게 세우고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하였던 때문이 아니라 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면서 총화행가사업을 실속있게 한데

있었다. 올해에도 이 작업반에서는 높이 세운 알곡생산계획에 따라 영농공정별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농사일을 계획대로 해내고있다. 이 작업반에서 수백의 흙을 구워낸 사실만 보아도 그러하였다.

작업반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흙구이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해나갔다. 거름생산과 흙보산비료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흙을 구워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반 조급일군들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사차비계획을 명백하게 세우고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대장사업을 앞세웠다. 이와 함께 매일 총화사업을 따라세웠다. 결과 이 작업반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기 세차게 타올라 흙구이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었다.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의 생각은 한껏 오를랐다.

(높이 세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자면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계획을 명백하게 세우고 집행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농장일군들은 이 사업에 힘을 넣었다.

여기서 잠깐것은 우선 알곡생산목표가 높은데 맞게 로력구성상태와 농기구, 영농자재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영농공정별계획을 명백하게 세우도록 한것이다. 작업반들끼리 나간 농장일군들은 알곡생산목표에 맞게 영농공정별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집체적으로 풀어 완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에서 세운 영농공정별계획을 구체적으로 로해한데 기초하여 농장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든 작업반 조급일군들이 그것을 알고 사업을 전개해나가기도록 하였다.

또 한가지 잠깐것은 시작부터 대장사업에 넘쳐 일을 내민것이다. 일군들의 의견이 있으면 사람들은 일군들의 얼굴부터 본다. 그때 일군들의 얼굴에 난감해하는 기색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일군들의 얼굴을 바라보고서도 눈치 채지 않고서도 일군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때 일군들의 얼굴에 난감해하는 기색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일군들의 얼굴을 바라보고서도 눈치 채지 않고서도 일군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때 일군들의 얼굴에 난감해하는 기색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일군들의 얼굴을 바라보고서도 눈치 채지 않고서도 일군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로력조직과 로력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일찌기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에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농촌경리의 주체적인 생산조직형태이며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제를 창조해주시었다.

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두고 당내외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농장일군들이 김철로 동계군의 편지에 접하고 많은 면적의 논에 흙갈이를 진행할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농장의 형태에 맞게 계획된 면적의 논에 잘게 밧다흙을 파내는데만도 보통 10여일이 걸려야 하였다. 하지만 농장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로력배치를 바로하여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얼마든지 방대한 과제를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농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에서 장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여기 그들이 놓치지 않은것은 개바닥파기전투가 작업반, 분조단위로 진행되는데 맞게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작업조직을 로력구성상태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한것이다.

영방의 땅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농장일군들은 더욱 분발해나갔다.

그들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기 위해서도 로력관리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급일군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었다. 우선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농장원들의 나이와 체질, 기술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 작업반장, 분조장들은 자기 작업반, 분조의 실정에 맞게 작업반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로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해나갔다.

농장일군들은 이와 함께 제6작업반 4분조장 박동준등이 로력관리사업에서 창조한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놓치지 않았다.

박동준동부는 부림소와 밧구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거름실어내기에 집중시켜 개바닥파기에 필요한 많은 로력배치를 찾아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농장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관심을 돌

리고 결린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시어 그들이 농사일에 전심전력하도록 하였다.

이 경험을 제2, 3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 분조에서 적극 받아들인 결과 개바닥파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들었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작업반, 분조를 열어나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는가는 문제를 분석총화하고 교훈을 찾도록 하였다. 그뿐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총화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로력배치사업은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감으로써 농장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이렇게 얻어낸 로력배치는 결코 작은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농장에서는 모든 영농공정을 일선대로 내밀면서도 열흘 이상 걸려야 하던 개바닥파기를 6일동안에 해내는 혁신을 창조할수 있었다.

《그렇게 흙갈이를 계획대로 내밀수 있게 되었다.》

지금 농장에서는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거어이 대풍작을 안아오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순홍

## 뜨락또르들을 만가동시킨 비결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쳐 지난 해보다 높이 세운 거름실어내기 목표를 수행하고 계획대로 흙갈이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높은 농사차비실적으로 빛내일 일년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성이 든든 프락토르들을 만가동시킨 결과 이룩된 성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과학 기술혁명에서 중요하게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회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새해공동농사의 전후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결의가 열렸을 때였다. 농장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운다면 농사차비를 여기에 따라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해 우리 농장을 세차레나 찾아주시고 온정어린 프락토르들을 보내주시었는데 이 롬마가 있는 한 못해낼 일이란 없습디다.》

이렇게 말머리를 댄 농장일군은 프락토르가동물을 높이는 여기에 농사차비는 물론 한해

농사성과가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서 기계화작업반원들속에 깊이 들어가면 좋은 방도를 찾을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때부터 농장의 일군들은 기계화작업반에 내려가 작업반원들속에 인민생활에서 경제적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농사의 과업을 해설해주면서 주공정선의 기계화초병원 영예를 실천으로 빛내이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었다.

매일 아침이면 기계화작업반에 들러지는 일군들의 어글수 있는 첫 일과로 되었다.

농장일군들이 힘을 넣은것은 프락토르점 및 정비체계를 정교하게 세우는 문제였다.

일군들은 운전수들이 매일 아침과 하루일이 끝난 후 프락토르점검을 진행하게 하여 미흡한것을 제때에 바로잡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하루작업시간과 끝난 후 프락토르를 점검하고 깨끗이 정비하는것이 운전수들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거름실어내기가 한창이던 2월초 어느날 제3작업반조급이었던 농장일군은 작업의 실황에 프락토르정비를 하는 운전수 정철동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작업실적이 제일 높으면서도 프락토르정비를 알뜰하게 하기로 소문난 운전수였다.

결처농은 프락토르공구함을 보니 여러가지 공구들은 물론 나무로 깎아만든 정비도구들이 전 시되고 그 모양을 따라배우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프락토르운전수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한것도 기계화초병원의 역할을 높여 새해농사차비전투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한 좋은 방법이었다.

농장일군들은 흙갈이와 거름실어내기, 영농자재확보 등 농사차비와 관련한 영농작업들을 부류별로 갈라서 프락토르들을 며칠씩 고장배치하여 경정하도록 하였다.

경정의 불길속에 프락토르운전수들속에서 집단적혁신의 좋은 기풍이 높이 불타고있다.

도시거름실어내기전투에 동원된 리상진동부를 비롯한 프락토르운전수들이 하루계획을 수행해내고 성취치 않아 밤새워 많은 고장배치를 실어들이는것이 대외적실례이다.

프락토르점 및 정비체계가 더욱 정연하게 세워지고 운전수들이 분발해나선 결과 프락토르가동률은 훨씬 높아지고 농사차비전투에서는 롬년에 없던 혁신이 일어났다.

본사기자 김향란

## 로력배치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 아니고...》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 주인공이라고 하면 무슨 일에서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인민생활현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어렵고 힘들어도, 난관이 앞을 막아도 늘 앞장에 서 대오를 이끌어가는 사람,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어 그들이 집단적혁신을 창조하도록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오늘의 대고조에서 주인공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 농기계부속품을 자체의 힘으로

곡산군농기계작업소에서 곡산농기계부속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하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높은데서 찾고 유도로, 압연기, 선반, 불만 등 설비에 관한 부속품을 길어 여러가지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사실 여러가지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체보장을 앞세우면서 파절을 모아야 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충을 들이던 일군은 부속품생산 계획을 계획대로 내밀자면 우선 파절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파절대미가 높아지자 일군들

과 기술자들, 로동자들도모두가 신심과 파란에 넘쳐 떨쳐나섰다. 유도로에서 쇠물이 나오자 모든 설비들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가공작업반의 기능공들이 하나의 부속품을 깎아도 그걸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서로의 힘과 창조적 지혜를 합쳐나가고있을 때 수리작업반의 수리공들도 프락토르와 농기계수리공과를 확대해나갔다.

성과가 오를수록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만가동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으로 거름실어내기를 다그친다.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 정치사업의 무대를 생산현장으로

### 보통강구역당위원회

보통강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육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인 선군령도를 따라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의지, 투철한 혁명정신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의욕을 발휘해나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며칠전 보통강신발공장에서 구역당의 당일군, 선동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그곳 기공예를 축하하는 공연이 진행되었다. 올해공동농사과업관철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이날의 예술선동공연은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일 데 대한 사상으로서 일관되어 있었다. 찬란문화의 기원전선인 국방공업부에서 강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계속 울려나오게 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선군조선의 민부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갈데 대한 사상을 반영한 예술상품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기공예선동대원들이 공동농사설의 체계와 내용을 반영한 종목도 특색있었다.

공연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모든 관람자들은 이 공연이야말로 구역당의 당일군, 당조급일군에게 오늘의 격동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 훌륭한 《교과서》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이채롭고 교양적인가 큰 공연무대는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공연무대의 뒤에는 당일군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책임비서 박인봉, 비서 보복동무부를 비롯한 보통강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이었다.

지난 1월 어느날 구역당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육을 더 참신하게 진행할수 있겠는가.)

모두의 생각은 이렇게 흘렀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올해의 벽두부터 불분분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선군혁명명도의 자욱을 세기까지 주국당무에 창조와 변혁의 불길을 지펴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려로 모습 이 뜨겁게 새겨져있었다.

하기에 모임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업을 경애하는 장군님선대로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투쟁적으로 진행할 결의를 다지었다.

정치사업의 무대를 들끓는

현실로 옮겨다!

이렇게 되어 일군들은 들끓는 현실로 달려나갈 진지를 차지 현실로 되돌아갔다. 정치사업의 무대를 생산현장으로 옮긴 구역당일군들은 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적극 탐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당의 선군령도업적교양사업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보통강신발공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한 구역당일군들은 예술선동의 형식과 방법을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창조하도록 단원일군들과 기공예선동대원들을 적극 이끌어주었다. 그들과 함께 예술선동의 매혹적인 형식과 방법을 새롭게 하고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군들은 많은 수고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올해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쳐놓을수 있었던것이다.

이날 구역당의 선동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한 모범적인 선동원들의 경험토론포모도 특색있었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그 준비사업부터 열심히 하였다. 출연자들이 당의 선군혁명사상을 대중속에 더욱 깊이있게 해설전하는 데서 지난 시기의 형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형식을 부단히 새롭게 하면서 실효성

《제힘으로 흥하는 사업소》, 《힘있는 사업소》... 이것은 라선시주력보수사업소를 찾는 사람마다 터치는 목소리이다. 길은요는 규모가 작고마한 사업소가 크게 용을 쓰고있다. 수천명의 세멘트생산선단지와 외장제생산선단지, 수십만대능력의 기와, 블로크생산기지, 고무부속기장치들이 그 공장에 부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약속된 날자가 되어 단위에 가보니 아직 설비를 만들지 못했다는것이였다. 그 일을 되새기는 지메인 정진동동무의 솔직한 고백이였다.

《그때처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라는 당의 구호의 참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것은 없었습니다.》

자기 힘이 기본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분발하여 일어났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이런 정진을 창조한 군중적혁신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자 누구나 자신에 넘쳐 좋은 방도들을 내놓았으며 어렵고 깊은 모퉁이마다에 애를 걸고 깊숙이 들어밀었다. 군중의 힘은 방동할수없고 커졌다. 청년들혁명대원들은 불꽃처럼 당의 기공예를 끌고갔다. 기술자들은 원동제작을 비롯하여 자체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던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탄탄히 해결해놓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냈다. 그럴수록 초급당위원회의 무대를 화선시정지사업의 무대를 공산현장에 접근시켰다. 여기에 사기를 높여주는 후방부대가 힘이 부쩍 솟아 하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마쳐세웠다.

은 사업소가 불타오르니 불꽃이 번졌다. 결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제건조로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세찬 불길, 그것은 불가늠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제힘을 믿을수록 길이 열리고 제힘에 의지할수록 기적이 창조되는 법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은 더욱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중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승리의 지름길을 곧바로 내달리도록 이끈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매우 시사적이다.

본사기자

## 제힘을 믿을수록 길이 열린다

### 라선시주력보수사업소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릴 데 대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자비로 공리해도 수제건조로만은 자력이 없었다. 자체의 힘으로는 그것을 만들수 있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당의 구호에 부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약속된 날자가 되어 단위에 가보니 아직 설비를 만들지 못했다는것이였다. 그 일을 되새기는 지메인 정진동동무의 솔직한 고백이였다.

《그때처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라는 당의 구호의 참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것은 없었습니다.》

자기 힘이 기본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낀 사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분발하여 일어났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회는 3대혁명붉은기행위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제건조로를 한달동안에 완성했. 이런 내용으로 결의목표가 다시 갱신될수 있었던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이다.》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 돌려주신 어버이사랑

“기술대학의 면모를 갖춘 본보기단위, 첨단기술로 무장한 날개돋친 《용마》! 이것은 최근년간 거듭 정예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로 받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청년장관대학을 가리켜 사랑하다 러지는 감동의 목소리이다. 그만큼 청년장관대학은 강성대국건설시대와 더불어 지극히 있어보지 못한 자기발전의 최정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년장관대학은 체위, 금속공업부문의 기술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수신훈의 발전력을 가지고 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의 거두시는 사랑과 믿음속에 대학은 강성대국건설 위업실현에서 없어서는 안될 체위공업, 금속공업부문의 기술인재양성기지, 과학연구기지로 강화발전되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년전 몸소 청년장관대학을 찾아 주신 경에는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와 공로를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에게 안겨 주신다 청년장관대학은 지난 기간 인민경제의 선행 부문을 떠메고나갈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수없이 양성하여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기여한 공로있는 대학이라는 값높은 평가와 믿음을 안겨 주시었다.

##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본분을 지켜

평양 산원 1 산과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기 위한 투쟁에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보건의료인들 가운데는 평양산원 1산과의 의료인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초 평양산원 1산과로는 정주에서 살고 있는 환자가 들어왔다. 당시 해산을 앞둔 그의 건강상태는 매우 위험하였다. 여러가지 병들이 겹쳐들어 보통의 상식으로 보아도 정상상태는 생각할수 없고 환자의 생명도 담보하기 어려운 최종중상상태였다.

하지만 즉시로 과학회의, 산과부문 회의회를 진행하는 이곳 의료인들의 심장속에서는

## 청진광산금속대학에서

경에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대학의 교육환경과 조건을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최첨단수준에서 더욱 개선할데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으며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 특히 기술대학에서 경쟁한 인재들을 키우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계시는 장군님의 깊은 손길아래 대학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최첨단수준의 교육수단들로 그르흔히 장비되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과학기술교육과 실험실습의 정보화에서 진전에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본보기단위로 명성명월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누구보다 기뻐하는 분은 우리의 경에는 장군님이시었다.

지난해 12월 김철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로 새해전투의 불길기를 지퍼주신 경에는 장군님께서는 이어 청년장관대학을 찾아 주시었다. 열띤 수신훈기체실습, 금속공학실험실, 종합분석실, 정보통신망연설, 전자도사실, 기계전자공학실험실 등 실험실습의 정보화가 훌륭히 실현된 대학의 여러 실험실들과 편관공정들을 돌아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현지지도의 길에 쌓인 피로를 잊으신듯 대학에서 자체로 만든 류체호를

특성실험장치며 김철로동계급과 합심하여 비록수체법실현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한 소행을 해아려주시는 경에는 장군님을 우리르느 대학일꾼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에는 장군님, 대학이 거둔 이 모든 성과는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주신 비약의 《용마》가 있었기에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꾼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감사의 웨침이 끊이지 흘러나왔다.

우리 장군님 마련해주신 비약의 《용마》!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경에는 장군님께서 친한금을 들어 갖추어주신 최첨단수준의 실험실습설비들과 장치들이었다.

대학의 실험실습기지를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것처럼 대학의 실험실습의 정보화수준은 그 어느 교육단위에 비길데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

절세의 위인의 사랑속에 이룩된 정보화의 개선과 실험실습의 교육환경의 실현으로 현재 대학의 강자들 실험실습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 높은 수준의 컴퓨터망이 형성되었다.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기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20여개의 실험실들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었다. 결과 대학은 컴퓨터통합생산체계를 갖춘 기업소들에서 한층 단단히 할 기술인재들을 키울수 있는 위력한 기술인재양성기지로 강화되

었다. 이번에 대학이 김철의 비록수체법실현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여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도 경에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성능높은 컴퓨터를 비롯한 최신형의 설비들을 적극 활용한 결과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보고받으신 경에는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정말 대단하다고, 대학이 CNC기술을 갖추고있으며 몇몇이 대학이라고 거두되는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경에는 장군님께서는 이어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들의 수도 헤아려보시며 대학이 기술대학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자면 CNC교육과 함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었으며 대학에 전자도사관과 체육관을 건설하여 후대교육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김철성종합대학, 김철공업종합대학에 이어 또다시 북방의 교육단위에 베풀어진 사랑, 이 은정!

청년 은정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후대관,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에서만 태어날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이다.

하기에 경에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대학의 전체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지금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관철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박옥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씨앗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건 태양을 향하여 자라나고 꽃이 피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단원의 열화같은 충모심과 지성에 받들려 활짝 핀 수만상의 태양의 꽃이 전신되어 황홀경을 펼쳐왔던 제 14차 김정일화추진, 이번 추진기간 참가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씨앗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건 태양을 향하여 자라나고 꽃이 피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단원의 열화같은 충모심과 지성에 받들려 활짝 핀 수만상의 태양의 꽃이 전신되어 황홀경을 펼쳐왔던 제 14차 김정일화추진, 이번 추진기간 참가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씨앗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건 태양을 향하여 자라나고 꽃이 피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단원의 열화같은 충모심과 지성에 받들려 활짝 핀 수만상의 태양의 꽃이 전신되어 황홀경을 펼쳐왔던 제 14차 김정일화추진, 이번 추진기간 참가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씨앗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건 태양을 향하여 자라나고 꽃이 피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단원의 열화같은 충모심과 지성에 받들려 활짝 핀 수만상의 태양의 꽃이 전신되어 황홀경을 펼쳐왔던 제 14차 김정일화추진, 이번 추진기간 참가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씨앗은 그 어디에 뿌리를 내리건 태양을 향하여 자라나고 꽃이 피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단원의 열화같은 충모심과 지성에 받들려 활짝 핀 수만상의 태양의 꽃이 전신되어 황홀경을 펼쳐왔던 제 14차 김정일화추진, 이번 추진기간 참가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열정과 민족적자존심,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어려오는 전신대였다.

국가과학원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진에 훌륭히 피워 내놓은 한산한상의 김정일화마다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제 14차 김정일화추진에 참가할 준비를 하면서 국가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발사와 제 2차 시험시험 성공, 세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조선 CNC-《원하기》... 내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며 련이어 세상을 들었다놓은 눈부신 성과들이 가슴뿌듯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로 살을 내뿜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던 지난해의 날과 달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안겨왔다.

《원하기를 떠나라》는 힘있는 글발과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의 모형 등, 정일봉상공에 더해오르는 추모며 물결이 유정하게 피어나는 소백수기, 보편 불수록 위대한 선진사대를 침당과로 빛내여가려는 우리

## 실습실습교육에 힘을 넣어

속천군 영웅속천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든 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는 세 세대의 질적상대가 규정됩니다.》

얼마전 속천군 영웅속천중학교를 찾은 우리는 교장 공훈공인 임용호동무와 함께 학교를 돌아보았다.

현대적미감이 나게 꾸러진 교사와 교육요양적의가 있게 꾸며져 만들어 세운 직관관들, 물리실험실과 자동차실습실을 비롯하여 실험실비와 기구들이 빽 들어찬 실험실습실들...

외국어수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와 기구들이 그르흔 갖추어진 외국어수업실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해주는 전력발전기는 우리의 찬란을 자랑했다. 컴퓨터실에 들어서니 컴퓨터전반을 능숙하게 다루며 여러가지 다매체전집들과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교원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알고보니 그들은 음악, 체육 등의 학과목담당교원들이었다. 우리에게 교장은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로, 컴퓨터지식과

## 병사시절 그때처럼

개성형예군인고려약공장에서

개성형예군인고려약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에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활짝 꽃피워가려는 불타는 열정에 넘쳐있다.

“우리는 어제날의 병사들이다. 성과에 자만함이 없으며 높은 목표를 향해 정보로 앞으로! 이것이 공장종업원들의 변함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이들은 미미해공동사업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하여 올해 전투목표를 대담하고도 통이 크게 세웠다.

대중의약품의 향을 높이는 한편 그 질을 더욱 높이는 문제, 공장의 인력을 보다 훌륭히 꾸리려고 생산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하는 문제 등 이들이 해쳐야 할 과업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전투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이들은 임의 정황에서도 고려약생산을

## 소 일꾼들과 노동자들

어떻게 내밀겠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제재, 로력보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더구나 비료생산공정은 한 다하는 기업소기술자들에게도 너무나 생소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말은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기사장 장익만동무의 말에 솔렁던 회의의장이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뒤이어 조급당비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도에서 건설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과 먹는물문제까지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었습니까. 아버지장군님께 식량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었다. 제련소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하나의 큰 화합공과 맞서는 방대한 공사를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자랑스런 열매

어떻게 내밀겠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제재, 로력보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더구나 비료생산공정은 한 다하는 기업소기술자들에게도 너무나 생소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말은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기사장 장익만동무의 말에 솔렁던 회의의장이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뒤이어 조급당비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도에서 건설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과 먹는물문제까지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었습니까. 아버지장군님께 식량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었다. 제련소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하나의 큰 화합공과 맞서는 방대한 공사를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 소 일꾼들과 노동자들

어떻게 내밀겠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제재, 로력보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더구나 비료생산공정은 한 다하는 기업소기술자들에게도 너무나 생소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말은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기사장 장익만동무의 말에 솔렁던 회의의장이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뒤이어 조급당비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도에서 건설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과 먹는물문제까지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었습니까. 아버지장군님께 식량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었다. 제련소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하나의 큰 화합공과 맞서는 방대한 공사를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 소 일꾼들과 노동자들

어떻게 내밀겠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제재, 로력보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더구나 비료생산공정은 한 다하는 기업소기술자들에게도 너무나 생소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말은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기사장 장익만동무의 말에 솔렁던 회의의장이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뒤이어 조급당비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도에서 건설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과 먹는물문제까지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었습니까. 아버지장군님께 식량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었다. 제련소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하나의 큰 화합공과 맞서는 방대한 공사를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 소 일꾼들과 노동자들

어떻게 내밀겠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제재, 로력보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더구나 비료생산공정은 한 다하는 기업소기술자들에게도 너무나 생소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말은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기사장 장익만동무의 말에 솔렁던 회의의장이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뒤이어 조급당비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도에서 건설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과 먹는물문제까지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었습니까. 아버지장군님께 식량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었다. 제련소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하나의 큰 화합공과 맞서는 방대한 공사를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 소 일꾼들과 노동자들

어떻게 내밀겠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제재, 로력보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더구나 비료생산공정은 한 다하는 기업소기술자들에게도 너무나 생소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말은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기사장 장익만동무의 말에 솔렁던 회의의장이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뒤이어 조급당비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도에서 건설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과 먹는물문제까지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었습니까. 아버지장군님께 식량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었다. 제련소의 석회질소비료생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하나의 큰 화합공과 맞서는 방대한 공사를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의 레방문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화곤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5일 평양도 라벨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국위원장의 레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레나도 라벨로 전국위원장에게 보내신 인사말을 전하였다.

전국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과 브라질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의 레방문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화곤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5일 평양도 라벨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국위원장의 레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레나도 라벨로 전국위원장에게 보내신 인사말을 전하였다.

전국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과 브라질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의 레방문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화곤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5일 평양도 라벨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국위원장의 레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레나도 라벨로 전국위원장에게 보내신 인사말을 전하였다.

전국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과 브라질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의 레방문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화곤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5일 평양도 라벨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국위원장의 레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레나도 라벨로 전국위원장에게 보내신 인사말을 전하였다.

전국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과 브라질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의 레방문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화곤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5일 평양도 라벨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국위원장의 레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레나도 라벨로 전국위원장에게 보내신 인사말을 전하였다.

전국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과 브라질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의 레방문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화곤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5일 평양도 라벨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국위원장의 레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레나도 라벨로 전국위원장에게 보내신 인사말을 전하였다.

전국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과 브라질



#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걸출한 령도자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다카, 로므니아 부쿠레슈티, 민주공화국 킨샤사에서 5일과 6일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집회들에는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자력갱생연구소, 로므니아사회주의당, 민주공화국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진정한 루마니아의 애국당, 주제사상연구 진국위원회, 로동계시민협회, 민주공화국-조선친선인민회 등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대대적으로 축하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민들의 영웅이며, 인민들의 영웅이며, 인민들의 영웅이며, 인민들의 영웅이다.

에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오메메 가스통 음보요와 로동계시민협회 위원장 로제베르 안드레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경에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위대한 주제사상, 선군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조선에서 전체 인민은 무로 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며 실업과 빈궁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 유치원들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탄생을 맞으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 충심으로 되라고 강조하였다. 인민대학 정책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인민들이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투쟁적이며 혁명적 선군정치에 대한 인민들의 애정 어린 박수속에 재확인되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몽골 다르한 울도 김일성유치원, 인민대학 정책연구소와 벨리시지자지부, 이란조선친선마그살농무장, 인도네시아 누르켄자나 레스마리 인민회사에서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집회, 사진전시회, 최담회, 영화감상회 등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영도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미호전세력이 조선반도에서 거이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발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유사시》 미해공군투입과 지상군동원계획까지 짜놓았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미국회 하원군사위원회가 청문회에서 국방장관에게서 상대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방대한 병력을 주둔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런인 날카로운 추궁》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문회에서 미국방성 고위인물들은 《기밀사항을 자제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은 《해공군에 집중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더니, 《지상전투력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방성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초기에 해공군을 투입하고 추가로 지상군을 동원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미국방성 차관보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전략의 양면의 발로로서 제2조선전쟁모드를 기정사실로 한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망상이었다.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 인류는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민들의 영웅이며, 인민들의 영웅이며, 인민들의 영웅이며, 인민들의 영웅이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몽골 다르한 울도 김일성유치원, 인민대학 정책연구소와 벨리시지자지부, 이란조선친선마그살농무장, 인도네시아 누르켄자나 레스마리 인민회사에서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집회, 사진전시회, 최담회, 영화감상회 등 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선군영도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미호전세력이 조선반도에서 거이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발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유사시》 미해공군투입과 지상군동원계획까지 짜놓았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미국회 하원군사위원회가 청문회에서 국방장관에게서 상대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방대한 병력을 주둔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런인 날카로운 추궁》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문회에서 미국방성 고위인물들은 《기밀사항을 자제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은 《해공군에 집중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더니, 《지상전투력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방성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초기에 해공군을 투입하고 추가로 지상군을 동원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미국방성 차관보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전략의 양면의 발로로서 제2조선전쟁모드를 기정사실로 한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망상이었다.

미호전세력이 조선반도에서 거이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발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유사시》 미해공군투입과 지상군동원계획까지 짜놓았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미국회 하원군사위원회가 청문회에서 국방장관에게서 상대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방대한 병력을 주둔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런인 날카로운 추궁》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문회에서 미국방성 고위인물들은 《기밀사항을 자제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은 《해공군에 집중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더니, 《지상전투력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었다. 이보다 앞서 미국방성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초기에 해공군을 투입하고 추가로 지상군을 동원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미국방성 차관보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전략의 양면의 발로로서 제2조선전쟁모드를 기정사실로 한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망상이었다.

중국어에서 문헌집 중국에서 최근 문헌집 《건국이래 모택동군사문고》를 출판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 출판사와 출판물출판사 공동으로 출판한 이 도서는 모택동 동지의 군사사상과 전략, 국방 및 군대현대화건설에 관한 연설, 담화, 지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도서의 출판은 당의 군사지도리론을 혁신하고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을 다그치며 세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 군대의 력사적사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중국어에서 문헌집 중국에서 최근 문헌집 《건국이래 모택동군사문고》를 출판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 출판사와 출판물출판사 공동으로 출판한 이 도서는 모택동 동지의 군사사상과 전략, 국방 및 군대현대화건설에 관한 연설, 담화, 지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도서의 출판은 당의 군사지도리론을 혁신하고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을 다그치며 세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 군대의 력사적사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중국어에서 문헌집

중국어에서 최근 문헌집 《건국이래 모택동군사문고》를 출판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 출판사와 출판물출판사 공동으로 출판한 이 도서는 모택동 동지의 군사사상과 전략, 국방 및 군대현대화건설에 관한 연설, 담화, 지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도서의 출판은 당의 군사지도리론을 혁신하고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을 다그치며 세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 군대의 력사적사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이שראל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규탄

에리트레아인민회의 의장 아흐메드 파르히 우루르가 13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유대인 《정착촌》 확장행동을 증지할것을 이스라엘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땅을 되찾는것은 국제법에 부합되는 합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부드스에서의 《정착촌》건설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공동체가 힘을 합쳐 《정착촌》건설을 증지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타인민족당 수감자문제상 부상이 최근 회견에서 팔레스타인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압탄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 자연 교해

키부호도의 한 섬에서 11일 열대성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열대성 폭풍으로 90%에 달하는 살림집들이 붕괴되거나 파손되고 뿌리째 뽑혀 넘어지거나 쓰러져 도로가 막혀 교통이 마비되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도 두절되었다. 일본의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6일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폭설과 강풍으로 니이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등 현들에서 도로들이 막혀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주민지역들사이의 련계가 차단되었다. 5일 스웨레아의 스톡홀름에서 많은 눈과 우박이 내려 살림집지붕들이 무너지고 부상자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조선중앙통신】

### 평화적행기기술개발은 합법적권리

기브르섬국회의 의장 4일 자기 나라 주제 이란대사와의 담화에서 이란핵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평화적행기기술개발은 이란의 합법적권리라고 하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라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란의 평화적행기기술개발권을 적극 지지하며 이란과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본사기자

###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수단정부의 평화수립노력을 지지 위한 수단정부의 노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콜무니케는 수단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단합하여 평화과정을 다그쳐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세계상식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들 1-2. 그러나 이 열대폭풍은 고나브의 근대역사상 가장 치명적인것은 아니라고 한다. 2004년에 이 도시는 열대폭풍 《제니》의 타격을 받고 3 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대부분이 평지로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그렇다만 고나브는 왜 열대폭풍의 피해를 입었는가? 그것은 고나브가 지리적으로 바다기에 위치해있고 또 카리브 지역 열대폭풍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더우기 대다수가 숲이 사라진 땅을 유지해가고있는 이곳 사람들은 산림을 파괴한 탓에 위기 직전에 서있고 있다. 20세기 80년대에 지리적 구조가 비슷한 아프리카의 다른 2개 호수에서 투지 같은 열대성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열대성 폭풍으로 90%에 달하는 살림집들이 붕괴되거나 파손되고 뿌리째 뽑혀 넘어지거나 쓰러져 도로가 막혀 교통이 마비되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도 두절되었다. 일본의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6일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폭설과 강풍으로 니이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등 현들에서 도로들이 막혀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주민지역들사이의 련계가 차단되었다. 5일 스웨레아의 스톡홀름에서 많은 눈과 우박이 내려 살림집지붕들이 무너지고 부상자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상식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들 1-2. 그러나 이 열대폭풍은 고나브의 근대역사상 가장 치명적인것은 아니라고 한다. 2004년에 이 도시는 열대폭풍 《제니》의 타격을 받고 3 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대부분이 평지로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그렇다만 고나브는 왜 열대폭풍의 피해를 입었는가? 그것은 고나브가 지리적으로 바다기에 위치해있고 또 카리브 지역 열대폭풍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더우기 대다수가 숲이 사라진 땅을 유지해가고있는 이곳 사람들은 산림을 파괴한 탓에 위기 직전에 서있고 있다. 20세기 80년대에 지리적 구조가 비슷한 아프리카의 다른 2개 호수에서 투지 같은 열대성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열대성 폭풍으로 90%에 달하는 살림집들이 붕괴되거나 파손되고 뿌리째 뽑혀 넘어지거나 쓰러져 도로가 막혀 교통이 마비되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도 두절되었다. 일본의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6일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폭설과 강풍으로 니이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등 현들에서 도로들이 막혀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주민지역들사이의 련계가 차단되었다. 5일 스웨레아의 스톡홀름에서 많은 눈과 우박이 내려 살림집지붕들이 무너지고 부상자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상식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들 1-2. 그러나 이 열대폭풍은 고나브의 근대역사상 가장 치명적인것은 아니라고 한다. 2004년에 이 도시는 열대폭풍 《제니》의 타격을 받고 3 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대부분이 평지로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그렇다만 고나브는 왜 열대폭풍의 피해를 입었는가? 그것은 고나브가 지리적으로 바다기에 위치해있고 또 카리브 지역 열대폭풍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더우기 대다수가 숲이 사라진 땅을 유지해가고있는 이곳 사람들은 산림을 파괴한 탓에 위기 직전에 서있고 있다. 20세기 80년대에 지리적 구조가 비슷한 아프리카의 다른 2개 호수에서 투지 같은 열대성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열대성 폭풍으로 90%에 달하는 살림집들이 붕괴되거나 파손되고 뿌리째 뽑혀 넘어지거나 쓰러져 도로가 막혀 교통이 마비되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도 두절되었다. 일본의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6일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폭설과 강풍으로 니이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등 현들에서 도로들이 막혀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주민지역들사이의 련계가 차단되었다. 5일 스웨레아의 스톡홀름에서 많은 눈과 우박이 내려 살림집지붕들이 무너지고 부상자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조선중앙통신】

### 세계상식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들 1-2. 그러나 이 열대폭풍은 고나브의 근대역사상 가장 치명적인것은 아니라고 한다. 2004년에 이 도시는 열대폭풍 《제니》의 타격을 받고 3 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대부분이 평지로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그렇다만 고나브는 왜 열대폭풍의 피해를 입었는가? 그것은 고나브가 지리적으로 바다기에 위치해있고 또 카리브 지역 열대폭풍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더우기 대다수가 숲이 사라진 땅을 유지해가고있는 이곳 사람들은 산림을 파괴한 탓에 위기 직전에 서있고 있다. 20세기 80년대에 지리적 구조가 비슷한 아프리카의 다른 2개 호수에서 투지 같은 열대성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열대성 폭풍으로 90%에 달하는 살림집들이 붕괴되거나 파손되고 뿌리째 뽑혀 넘어지거나 쓰러져 도로가 막혀 교통이 마비되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통신도 두절되었다. 일본의 중부와 북부지역에서 6일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폭설과 강풍으로 니이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등 현들에서 도로들이 막혀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주민지역들사이의 련계가 차단되었다. 5일 스웨레아의 스톡홀름에서 많은 눈과 우박이 내려 살림집지붕들이 무너지고 부상자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조선중앙통신】